

회계발전 공로... CPA 윤종규 회장 '철탑산업훈장'

〈공인회계사〉

〈KB금융〉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

정부포상 첫 수상자로 선정
해외투자 유치 등 공헌 평가
활발한 사회공헌 등 이바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에게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금융위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회계발전 공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첫 산업훈장의 주인공이 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윤 회장에게 철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이번 '회계의 날'부터 회계발전 유공 관련 정부포상이 새로 생겼으며, 윤 회장이 산업훈장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윤 회장은 공인회계사(CPA)로서는 단일회계법인에서 부대표까지 지냈다.

윤 회장은 공인회계사로 재직하던 당

시에는 ▲회계와 세무 선진화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등에 기여 ▲해외투자 유치와 공인회계사 업무영역 확대 등에

공헌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2014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기업의 인프라와 문화로 정착시키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회계발전에 이바지했다.

윤 회장은 "기업 등의 경제주체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회계시스템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회계산업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기본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사회자본 형성의 주춧돌이자 파수꾼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회계산업에 종사하던 당시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이 부실 금융사에 대한 경영 평가 등 워크아웃 업무를

주도하며 투자은행(IB)이 독식하던 부실채권 매각업무와 인수합병(M&A) 업무에도 국내 회계업계가 참여하는 지평을 열었다"며 "외자계 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부터 폐쇄에 이르기까지 토달 서비스 제공을 선도한 것도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했다.

한편 회계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그는 "회계사가 된다는 것은 직업의 마지막 목표가 아닌 사회의 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다"면서 "경제주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끌고, 나아가 글로벌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이대훈 농협은행장, 홍콩지점 개설 추진

홍콩투자청장 만나 면담 진행
스타트업기업 진출지원 등 논의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이 지난 3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스티븐 필립스 홍콩투자청장과 면담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 /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대훈 행장과 스티븐 필립스 홍콩투자청장이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농협은행의 홍콩지점 개설을 비롯해 한국 스타트업기업의 홍콩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스티븐 필립스 홍콩투자청장과는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홍콩투자청장은 한국 스타트업기업과 만나기를 기대하며, 이 행장은 금융과 부동산, 농식품업 등 다양한 분야의 36개 스타트업기업을 지원하는 NH디지털혁신캠퍼스 방문 및 지속적인 교류를 제안했다.

이 행장은 "홍콩은 자본시장 친화적 시장 환경과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했으며,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투자금융(IB) 전문가와 거래정보가 집결된 곳"이

라며 "농협은행은 홍콩의 풍부한 신디케이트론 딜 시장 참여를 목표로 지점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올 4월 홍콩금융관리국에 은행업 인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내년 4분기 중 인가를 취득해 오는 2021년 상반기에는 홍콩지점을 개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회계개혁, 기업 성장위한 필수적인 투자"

은성수 '회계의 날 기념식' 참석
"각종 개혁 시장안착 위해 도울것"

"회계 개혁은 기업의 정상화 과정,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회계개혁으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도 있지만 제도변화로 인한 불편함, 비용부담 증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현장의 상반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균형된 관점에서 각종 회계개혁 조치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영업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회계업계는 기업의 어려움을 충분히 헤아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과거 영업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해 감사 품질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이번 개혁의 정당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회계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회계개혁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성을 스스로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계정보는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을 비롯해 사회전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회계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그릇된 의사결정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

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로 연결돼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 최종경 공인회계사회장은 "회계가바로서야 경제가 바로선다는 믿음을 갖고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회계개혁 과업에 앞장서 왔다"면서 "제도개혁 못지않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숙한 회계문화를 창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계의날은 회계개혁법인 새 외부감사법이 제정·공포된 20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올해 두번째 행사가 열렸다. 이번 회계의날 기념식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정부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정관계 및 회계업계 인사와 회계발전유공수상자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훈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등 총 7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나유리 기자 yul115@

'디지털전환' 하나금융, 쏠림직원 코딩교육

하나금융그룹의 전 임직원이 코딩교육을 받는다. '순님중심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의 전환을 위해서다.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생존의 필수요건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생존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디지털 비전 선포식' 이후 디지털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조직구조 개편과 조직문화 전환을 실행했다.

한준성 하나금융지주 그룹디지털총괄 부사장은 31일 "디지털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디지털 역량은 IT부문 직원만이 아닌 전 금융인의 기본역량이자나의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고객께 디지털에 감성을 더한 더 좋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며 온라인 서비스가 금융의 주요 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업들도 기업 DNA 전환과 디지털 인재 육성을 통해 디지털 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추세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전 임직원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첫 단계로 임원부터 사원에 이르기까지 그룹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스크래치를 활용한 코딩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스크래치는 간단한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직접 만들고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초 코딩 프로그램이다. /홍민영 기자

우리銀, 프롭테크 활용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 확대

스페이스워크 등과 제휴
부동산 가치 증대 논의도

우리은행이 프롭테크(PropTech)를 활용한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 확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우리은행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프롭테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부동산 자산관리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인공지능 부동산 솔루션 사업자인 스페이스워크 및 주택임대관리 플랫폼 사업자인 알에셋마스터리스와 제휴를 마쳤다.

스페이스워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건축설계 기술을 활용한 투자자문 플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30일 우리은행 청담투체어스 프리미엄센터에서 제휴사 스페이스워크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가치 증대 및 절세 전략 세미나'를 실시했다. /우리은행

랫폼 '랜드북(Landbook)'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개발이나 리모델링 등을 통해 부동산 가치 제고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랜드북과 연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알에셋마스터리스는 주택임대관리에 모바일 솔루션이 도입된 '스마트하우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곳으로 공실 및 연체관리 서비스를 우리은행 고객에

게 우대된 조건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30일 우리은행 청담투체어스 프리미엄센터에서 제휴사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가치 증대 및 절세 전략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을 통해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과 절세 방법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